

부마민주항쟁 26주년 정신계승대회 “증언대회” 박정희 통치기의 국가폭력 사례

- 주 최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마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자료제공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공원
 - 일 시 : 2005년 10월 16일(일) 14~16시
 - 장 소 : 민주항쟁기념관 큰방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박정희 군사 독재를 다시 회억하는 자리에서

이상록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원)

거의 한 세대나 되는 세월을 거쳐 왔지만, 다시 그 시절을 돌아켜 보니 새삼스럽다는 느낌이다. 이제는 기억의 한 편에 어두운 빛깔로 포장된 꾸러미처럼, 다들 잊혀 두거나 묻어 두고 살지만 돌아보면, 당시를 살던 사람들조차도 참으로 해괴한 느낌마저 드는 시절들이다. 암울하거나 우울하다는 형용사를 쓰기에 앞서 어찌 보면 웃음부터 나오는 것이 오늘의 느낌이다. 책 한권 읽는 것이 눈치 보였고, 술 자리에서 조차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었다는 사실이,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으로서도 잘 실감나지 않는다. 괴로웠다는 서술보다 지금의 감각으로야 차라리 코믹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책 읽는다고 하여 잡아 가두는 우스운 짓거리야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일부 남아 있었지만, 대학가의 술자리에서까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참말 같지 않은 참말이 사실이었던 것이 박정희 시절이다. 시국에 대한 예기는, 어느 술자리에 앉아서도 목소리 낮추어 귀엣말 하듯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까딱하다 옆 자리에 보수적인 고루한 사람이라도 앉은 양이면 잡혀갈 각오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난다. 부산전역 건너편 산꼭대기 가까이 동굴집이라고 있었다. 일제 때 방공호로 일제가 파 놓았던 동굴에 의자를 갖다 놓고 딱걸리를 깔고 있는 술집이 있었다. 그 집 주인이 좀 괜찮은 사람이었던지, 한 번씩 가서 빼박한 노래도 부르고 시국에 대한 비분강개도 쏟아 붙곤 하던 집이 있었다. 이렇듯 주식에서마저 자유롭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다. 술좌석에서 있었던 대화로 인해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도 감옥 속에서 많이 보았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그 반공법으로 들어온다. 소위 시국 사건으로 들어오는 정치범이나 학생들은 교도소 내에서 대우라도 있게 마련이며, 또한 형기도 다 채우지 않고 길어야 2~3년 정도 실면 풀려나는 법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러한 사면·복권 혜택조차 없다. 잡혀들어 갈 때 정보와 형사들의 뇌리에 약간의 점잖은 느낌을 주고나면 그뿐, 금방 사회적으로도 잊혀지고 만다. 밖에서 떠돌아 줄 사람도 없으니, 감옥 안팎에서도 금세 잊혀지고 마는 것이다. 그들은 감옥소 내에서도 외톨이 신세다. 소위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그런 동네에 대해서는 집구석 망해 먹는 사람들로 대하던 열갑넙들이거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대다수이었기 때문이다. 형여 감옥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정치발들도 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박정희 코메디의 부산물이라 말해야 할까?

아무튼, 이런 시절이 이제는 묘한 방식으로 잊혀져 가고 있다. 본질인 몸체는 잊혀지고, 박정희가 걸치던 장식물이나 구호들만 오히려 어두운 경제 현실의 반사물로 일부 대중들에 떠오르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망령이 정말로 그의 딸이나 잔존 신도들의 몸을 받아 부활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상상이다. 그의 물결이 워낙 흉악했으니 아마 저승에서도 쉬 받아주지 않았으리라. 구천을 떠돌다 잠시 이승을 기웃거리는 것이라. 나는 가끔 젊은 세대들을 만나면 박정희 독재가 더 악랄하다고 생각하는지 전두환 독재가 더 악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볼 때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두환이 더 심한 독재였다는 평가를 듣는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해 본다. 전두환도 광주 학살로 수천 명을 죽였으니 악명 높다 할 것이나, 이를 어찌 박정희에 비할 것인가? 5·16 군사 혁명 재판에서 처형된 수많은 사람들과 그의 18년 영구 집권 획책 기간 동안 시나브로 죽고, 감옥 살고, 고문당한 사람들의 원성을 합하면 이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독재의 악랄함을 단순히 죽은 사람들의 머릿수로만 비교할 수 있을까? 전두환은 박정희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그의 재임 시에는 오히려 자유가 있었다. 적어도 83년 하반기부터는 학원 자율화 투쟁이 제법 그 성과를 누렸던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 박정희 정권은 당시 전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독재 정권이었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무렵, 1978년 말쯤이었을 것이다. 당시 국내 서점가에 배포되던 Time지에는 검게 먹칠되어 나오는 기사가 자주 있었다. 한국 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기사가 실리거나 하면, 감히 미국의 유수 저널인지라 그 대목을 오릴 수는 없으니 검게 먹칠하여 배포하곤 하였다.

미군 부대를 통하여 입수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보 기관의 먹칠 검열을 받지 않은 해당 기사를 보고 그것을 번역하여 돌렸던 일이 있다. 5~6 쪽에 걸친 특집 기사였다. 세계의 5대 독재자를 소개하는 기사였다. 이란의 팔레비 국왕, 대만의 장개석 총통,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니카라과아의 소모자 대통령, 한국의 박정희였다. 두 쪽 가까이를 그에 함해하고 있었다. 대만 점령 이후 선거 한 번 거치지 않고 평생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 자연사한 장개석을 빼고나면 나머지 세 사람은 민중의 혁명을 통해 권좌에서 축출 당한 사람들이다. 박정희 역시 부마 항쟁의 들끓던 분노 속에서 그의 오른 팔,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당했음은 물론이다. 그 기사의 말미에 서는, 이들 모두가 미국의 비호 아래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 정부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오고 간 질의응답 한 구절을 짤막하게 옮겨놓고 있었다.

기자: "이들 독재 정권들을 미국 정부가 뒤에서 후원하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 "우리에게만 개새끼(분명히 son of bitch라 적혀 있었다)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련도 역시 개새끼(son of bitch)들을 가지고 있다....." 박정희는 미국에 의해 부활된 일제의 망령인지도 모르겠다. 탄압의 양태가 그러했을 뿐 아니라 민중에 들쭉되었던 대중 동원 체제가 그러했고, 사상 강제가 궤를 같이 했다. 반정부 운동에 대한 형량도 일제가 항일 투사들에 가했던 것의 곱절이나 되었다고 한다. 일부의 국민들 간에는 경제 성장의 기적을 창출한 공로만은 그에게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박정희의 사상 동원과 강제의 세뇌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반증해주는 증거일는지 모르겠다. 경제 개발을 위해 군사 독재를 했고, 독재의 루트를 통해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묘한 결과론일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부양하던 군사 독재 정권들은 전세계에 걸쳐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침체와 파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남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독재를 한 나라 가운데 경제 성장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란 예외적이다.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정도가 아닐까? 이들 극히 일부의 경우를 가지고 보편화의 자료로 삼는 것은 논리상의 오류가 지나치다. 대다수가 실패하였다면, 그 공통적인 특징들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다른 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문화적 특수성이나 교육 투자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탄생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바 크다면, 오늘날의 군사 독재 청산 유보라는 역사적인 현상은 미래에 어떠한 후과를 초래 할 것인가? 군사 독재 청산이란 과제를 목록에조차도 올리지 않고 입법한 노 정권 하의 과거사 청산 특별법은, 오히려 그들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차기 정권에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번 박정희 체제하의 피해자 증언 대회는 사상, 정치, 노동, 경제 등의 분야에서 지역 피해 사례의 일부를 중심으로 고발한다.

첫째, 75년 11월 제일 동포 유학생을 중심으로 엮은 상투적인 조작 간첩단 사건(김오자, 노승일, 박준건 등),

둘째, 61년 5월 5·16 쿠데타 정부하에서 급조한 특수범죄처벌 특별법으로, 4월 혁명 공간 내에서 활동했던 교원 노조 운동과 악법 제정 반대 투쟁을 소급 적용하여 탄압했던 사건 (이중식 등),

셋째, 76년, 77년의 인천 지역 동일 방직 노동조합 탄압 사건과 78년 5월, 이에 앞장섰던 어용 섬유 노조 위원장 김영태의 정치적 출세 야욕을 폭로하며 선거 공간에서 투쟁하였던 노동자에 대한 탄압 사건 (추송례),

넷째, 79년 10월 18일, 부마 항쟁시 마산에서 시위를 주도하여 긴급조치 9호에 의해 탄압 받았던 사건 (최갑순 등),

다섯째, 62년 6월, 거액의 사유 재산과 3개 언론사를 고문·협박을 통해 전유하였던 부일 장학회 강탈 사건 (김지태),

등 다섯 사례를 폭로한다.

한 시대의 고발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숫자의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이를 시발로 보다 생생한 자료들이 앞으로 줄 이음 것이라 기대해 보면서, 박정희 체제 하에서 희생당한 많은 이들의 한 맺힌 가슴을 조금이나마 삭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군사 독재 체제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의 청년 세대에게도 살아있는 각성의 자료로서 기여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